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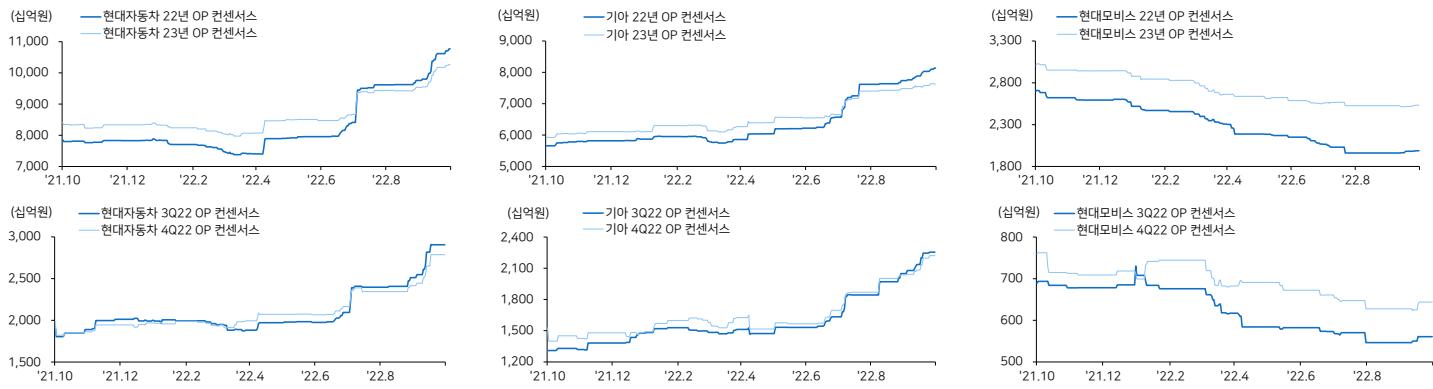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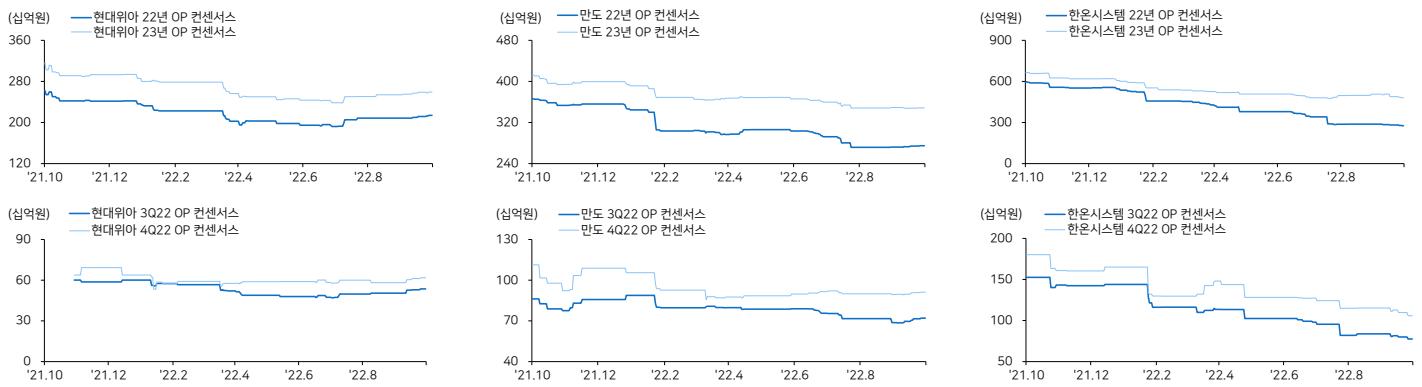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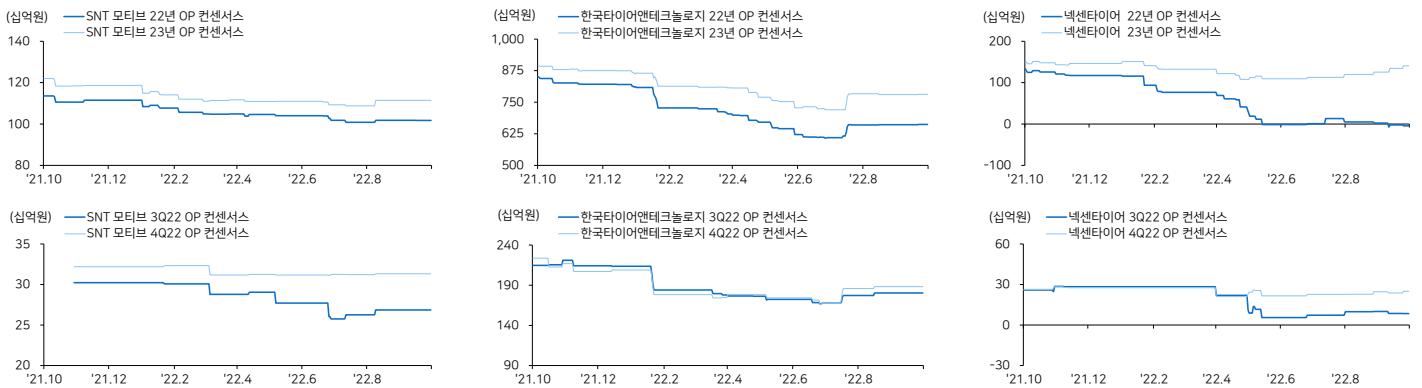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엘런 레이너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 (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힘. 미 재무부는 세부 규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 존재.
<https://bit.ly/3WOUrCM>

미서 전기차 전용기지 첫발...현대차, 미래성장 동력 전환 가속 (연합뉴스)

현대그룹은 예정대로 조치와 함께 공장 착공식을 열고, 내년 초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 연간 생산량은 최대 30만대로 예상됨.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곧 착공, 2025년 완공 예정.
<https://bit.ly/3W4EGKO>

Musk informs co-investors he plans to close Twitter deal by Friday, person familiar says (Reuters)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투자자들에게 28일까지 인수를 마감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는 보도. 해당 거래에着眼于 했던 행사는 최종 차입금 계약을 완료, 필요한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짐.
<https://reut.rs/3TAu4SD>

Tesla's new Cybertruck Giga Press is on its way (electrek)

Tesla에게 기가프레스 장비를 납품하는 IDRA는 2023년 중반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 기가프레스를 기가 텍사스로 출하 중. 기가프레스는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기술.
<https://bit.ly/3WdZtMm>

현대차, 인도서 2554억원 투자해 생산량 85만대로 확대 (글로벌이코노미)

현대차 인디아는 약 2,554억원을 투자, 현지 공장 생산능력을 85만대까지 늘릴 계획. 생산 과정과 공급망, 신모델 도입에서 공정을 단축시켰으며 향후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해 판매를 끌어올릴 방침.
<https://bit.ly/3f4hrv>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서버,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제시.
<https://bit.ly/3FhWDzY>

GM Q3 net income jumps 37% on record revenue (Automotive News)

GM은 3Q22 역대 최고 매출액 달성을 기록, +37% 증가한 33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7.9%를 기록. GM은 신차 출시 계획이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 중이라고 언급.
<https://reut.rs/3DcrukF>

Intel unit Mobileye prices IPO above range to raise \$861 mln (Reuters)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를 통해 4,100만주를 주당 21달러로 책정하며 8.6억달러를 조달. 기존 희망했던 기업가치 500억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167억달러로 평가됨.
<https://reut.rs/3Dcmru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